

“미국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America is under attack

오사마 빈 라덴이 이끄는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인 알 카에다(Al-Qaeda)가 일으킨 9.11 테러(September 11 attacks)는 미국 뉴욕의 세계무역센터(WTC)와 워싱턴의 국방부 청사(펜타곤)가 공격받아 약 3천여 명이 사망하고 6천여 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자살테러 사건이다.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은 항공기를 납치하여 제1세계무역센터, 제2세계무역센터, 미 국방부 청사에 각각 충돌시켜 사상자를 발생시켰다.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지만, 백악관 또는 국회의사당으로 충돌시키려던 항공기는 승객들에 의해 저지되어 펜실베이니아 주 생크스빌 별관에 추락하였다.

같은 시각 플로리다 주의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 주던 조지 부시 대통령은 비서실장으로부터 “미국이 공격받고 있다(America is under attack)”는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태연한 척하고 있지만 실시간으로 표정이 굳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9.11테러 20주년 추모식에서 미국 국가가 연주되는 동안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는 조 바이든 대통령 부부와 클린턴 전 대통령 부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부부

테러가 벌어진 세 곳의 현장에서는 매년 9월 11일마다 추모 행사가 열려 대통령, 정치인 등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기념지 3곳을 방문하여 20주기를 기렸다. 별도의 연설은 없었지만 사전 녹화된 영상을 통해 “우리는 단결이 절 때 깨지지 않아야 할 단 한가지라는 것을 배웠다. 단결은 우리를 우리답게 만들고, 미국을 최고로 있게 하는 것”이라며 “저에게는 그것이 9.11 테러의 가장 중요한 교훈”이라고 국민통합과 단결을 촉구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은 ‘USA PATRIOT ACT’를 통과시켜 자국민들의 자유를 구속하는 한편 대외적으로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을 선포하여 오사마 빈 라덴을 축출하고 알 카에다를 지원하는 탈레반과 2001년 10월 7일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전쟁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전쟁으로 미군을 비롯한 다국적군의 사상자는 27,000여 명에 이르렀고 미국은 전비로 약 2조 2,600달러(약 2,619조)를 지출하고 2021년 8월 30일 철수하였다. **KMIF**